

# 1분기 합계출산율 1.01명 '역대 최저'



올해 1분기와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해 우려를 더했던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기준 가장 낮았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1년 전보다 0.07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기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연간 기준 0.98명을 기록하며 0명대로 내려앉았다. 1분기에는 1.08명 수준이었지만,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6년 기준 1.88명으로 1명이 채 안 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시계열상 연초가 연말보다는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이라면서도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감소 폭이 컸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 저출산이라는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연령대별로 보면 30~34세가 1000명당 96.6명을 낳아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35~39세가 48.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25~29세에

통계청, '3월 인구동향'...출생·혼인 감소 러시 지속 출생아 40개월째 감소...3월 기준 첫 2만명대 내려앉아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2013년 이후 감소 폭 가장 커

선 39.9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각각 6.2명, 1.0명, 6.5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72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남(1.36명), 제주(1.26명), 충남(1.24명), 경북(1.22명), 충북(1.18명), 울산(1.18명), 강원(1.17명), 경남(1.17명), 인천(1.06명), 경기(1.03명), 전북(1.03명), 대구(1.01명) 등에서 1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0.78명), 부산(0.90명), 광주(0.96명), 대전(0.99명) 등에서 1명에 미치지 못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3100명으로 1년 전보다 6800명(-7.6%) 감소했다. 감소 폭은 지난해(-8.6%)보다 축소됐지만, 1분기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월만 놓고 보면 2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2900명(-9.7%)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저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40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 지표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혼인 건수는 지난 3월 1만9600건으로 1년 전보다 3200건(-14.0%)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 혼인 건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 폭은 3월 기준으로 2013년(-16.2%) 이후 가장 컸다. 1분기 기준으로는 5만9100건으로 전년 대비 7100건(-10.7%) 줄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일반혼인율은 지난 1분기 남자가 10.8건, 여자가 10.6건이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건, 1.4건 줄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적령기라 알려진 30대 초반 남자, 20대 후반 여자 혼인율이 1년 전보다 7.2건, 8.7건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 간편조리 열풍...에어프라이어 판매 11배 늘어

가정간편식(HMR) 등의 인기에 힘입어 간편조리 수요가 늘면서 에어프라이어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29일 전자랜드에 따르면 올 1~4월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했다. 또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판매량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보다 이미 36%나 앞섰다. 에어프라이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지난해 판매량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하반기에 에어프라이어 판매량은 상반기보다

229% 많았다. 맛별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간편한 조리로 가사 노동을 줄이고 여유시간을 가지려 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 에어프라이어의 인기 이유로 보인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생활에 편의와 여유를 주는 제품에 지갑을 연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다양한 가전제품 영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도심속 명품 테라스하우스의 완성"

### 광주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내일 전격 오픈

(취)한양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3-1번지의 일원에 최고급 테라스하우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플러스를 31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전격 밝혔다.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플러스는 지하층, 지상4층총32개동으로 전용 75㎡, 84㎡ 총 592세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 동안 도심 속 명품 테라스하우스로서의 가치를 알리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먼저 설계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층 세대 테라스는 물론 일부세대에 앞뒤 더블테라스를 설계했으며 최상층엔 옥탑과 테라스를 설계했다. 전세대 남서,남동 등의 남향 위주 배치와 알파룸과 팬트리 특화설계,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약 2.5M의 높은 천정과 주방상관 및 벽 등에 엔지니어드스톤 적용,



어등산 등산로와 연결된 단지전용 산책로, 지하 각종 개별 주차공간, 에코형 명품조경 등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지내웨트니스, 도서관, 회의실, 어린이집 등 입주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도 선보인다. 도심속 가진 테라스하우스로서 주거인프라도 자랑할만하다.

우선 광주전역으로 이어지는 제2순환로가 차량으로 5분 안에 연결되며, 무진로 또한 바로 인접해 있어 무안-광주고속도로로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 그 밖에 하남진곡편의를 위한 커뮤니티도 선보인다. 도심속 가진 테라스하우스로서 주거인프라도 자랑할만하다.

수원지구의 생활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가능하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이마트, 월곡시장, 그리고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도 바로 인접해 있어 편리하다. 도보거리 산정초를 비롯, 산정중, 하남중, 월곡중, 정광고 광주여대, 호남대 등의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또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어등산과 바로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줄 숲세권 주거단지라는 점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4일 정부가 광주에 면세점 1곳을 신규 허용하는 가운데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어등산한양수자인 테라스플러스 주택전사관은 광주 서구 내방로 417번지에 위치한다. 문의 1566-5335.

## 한국은행, 도·소매업 대출 150조 육박

### 11년만에 증가 최대

올해 1분기 도·소매업 대출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 대출 잔액은 14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08년 2분기(4조8000억원 증가) 이후 10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조4900억원(11.6%) 증가했다. 여기에 숙박·음식점까지 포함하면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대출은 205조5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6조원 증가) 이후 9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4%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지난 2009년 1분기(11.8%)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증가세가 커진 것은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크

다. 1분기 신설법인수는 5980개로 전분기(5913개)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 업종으로 창업 등이 몰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세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 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1분기 3조5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지난 2014년 1분기(2조1000억원 증가) 이후 5년 만에 최소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데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다만 대출 잔액은 235조4000억원에 달해 서비스업 대출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34.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업 대출은 9조9000억원 늘어난 88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증가액(17조3000억원)의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